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남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만두고, 너희 자신을 유익하게 하여라. 황금처럼 되어서 남들에게 길을 보여주어라.

질문: 몸 없이 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이들을 나타내는 주된 표시는 무엇이나?

대답: 그들이 강제로 신체 감각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체 감각이 자동적으로 차별해진다. 그들은 우리 영혼들이 형제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한다. 그들은 계속해서 육체의식을 버리고, 이름이나 형태에 대한 도취감을 전부 끝낸다. 그들은 다른 존재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노래: 당신은 사랑의 대양입니다. 저희는 한 방울을 목말라합니다.

음 산티. 저 분은 단지 사랑의 대양만이 아니라 지식의 대양이기도 하다. 지식과 무지가 있다. 지식은 낮이고, 무지는 밤이다. "지식"이라는 말은 좋고, "무지"라는 말은 나쁘다. 반 사이클 동안은 지식의 보상이 있고, 나머지 반 사이클 동안에는 무지의 보상이 있다. 무지에 대한 보상은 슬픔이고, 지식의 보상은 행복이다.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가 무척 쉽다. 지식의 낮과 무지의 밤이 있다. 무엇이 지식이고 무엇이 무지인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것은 무한한 문제다. 너희들은 무엇이 지식이고 무엇이 신봉인지 모든 이에게 설명한다. 지식을 통해서 너희는 숭배받을 가치가 있게 된다. 숭배받을 가치가 있게 되면서 너희는 숭배의 장식용품들에 대해서 알게 된다. 너희들은 사원들 등이 모두 기념비라는 것을 안다. 너희들은 그들의 전기를 안다.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숭배하는 이들의 전기를 모른다. 숭배는 신봉이라고 불린다. 신봉자들에게 그들의 신봉에 대한 결실을 주려면 신이 그의 신봉자들을 만나야 한다. 신이 와서 숭배자인 자들을 숭배받을 가치가 있는 이들로 만든다. 황금시대에 너희는 숭배받을 가치가 있으며, 철시대에는 숭배자들이다. 너희들이 오늘 무엇이고, 내일 무엇이 될 것인지 너희 자녀들은 안다. 파괴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자연재해가 많다는 것이 기억된다. 너희들은 "내전과 자연재해들은 신이 내린 재앙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드라마에 정해져 있습니다."라고 써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들이 멸망을 도울 것이다. 폭우와 기근 등도 일어날 것이다. 지진도 역시 일어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파멸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그 모든 것이 틀림없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안다. 달리 어떻게 황금시대에 그토록 적은 수의 인간들만이 있겠느냐? 파괴는 반드시 돌연히 일어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이 더러운 옷들이 모두 세탁되리라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한다. 이것은 거대하며 무한한 기계장치다. 신이 더러운 옷들을 세탁한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물리적인 의복이 아니라, 육신을 말하는 것이다. 영혼들은 요가의 힘으로 세탁되어야 한다. 지금 이때에 5악이 타모프라단하르로, 만들어져 있는 몸들도 또한 그렇다. 정화자 아버지가 와서 너희를 정화시킨다. 다른 모든 이들이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순수해지는지 너희는 안다. 매우 쉬운 길이 너희에게 보여진다. 인간들은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신봉의 길에서 사람들이 희생의 불을 피우는 곳마다 너희가 가서 이렇게 설명해야 한다: 여러분이 숭배하는 이들의 전기를 이해함으로써 여러분도 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의 해방을 얻었는지 와서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원에 가서 그들의 전기를 설명하면 사람들은 아주 분명하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또한 아버지에게서 그들의 전기도 듣고 있다. 너희 자녀들은 참으로 많은 이해를 받았다! 아무도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의 전기를 모른다. 그가 편재한다고 말함으로써, 전기란 것이 있을 수 없다. 너희 자녀들은 이제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의 전기를 안다. 즉 시작과 중간, 끝을 안다. 아버지가 와서 불순한 자들을 정화시키는 지금 이때는 시작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신봉의 역할이 있다. 아버지가 말한다: 지금 이때에 내가 와서 창조를 행한다; 이것이 이뤄지도록 내가 고취한다. 나는 카란카라반하르(그 자신도 행동하고 남들을 통해서도 행동하는 분)다. 영감을 고취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가 행하는 것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바바가 와서 이 사람의 신체기관들을 통해서 그 일을 수행한다. 이것에는 영감의 문제가 없다. 카란카라반하르는 틀림없이 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할 것이다. 영감을 통해서는 아무 것도 달성되지 않는다. 몸 없이는 영혼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신은 모든 것을 영감을 통해서 행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바바, 제 남편에게 영감을 주어서, 그의 지각을 바르게 해주소서!" 아버지가 말한다: 이것에 있어서는 영감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왜 쉬바의 탄신일이 경축되었느냐? 영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달성된다면, 그가 왜 오겠느냐? 우선, 사람들은 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그들은 그저 모든 것이 신이 고취하는 영감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말만 할 뿐이다. 무체인 분이 어떻게 영감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는 카란카라반하르다. 그가 와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준다. 그는 신체감각들을 통해서 멀리를 말한다. 신체기관들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야 그가 어떻게 멀리를 연주할 수 있겠느냐? 그는 지식의 대양이다.

그러므로 지식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입이 필요하다. 너희 자녀들은 지금 세계 전체의 시작, 중간, 끝을 안다. 너희들은 전체의 모든 지식을 받았다. 사람들은 지식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믿는다. 누가 지식을 줄 수 있느냐? 지식의 길과 무지의 길 사이의 차이를 보아라! 사람들은 과학(비기안)에 대해서도 역시 얘기한다. 무지는 어둠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식(기안)과 과학(비기안)이 해방과 삶 속에서의 해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너희들은 지금 순수해지려고 지식을 받고 있다. 너희들은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이들이 되고 있다. 이 얘기를 듣는 이는 누구든 놀랄 것이다. 지식을 받는 것은 영혼이므로 틀림없이 영혼들이 그 산스카라들을 지니고 갈 것이라고 얘기한다. 너희들은 인간에서 신인들로 바뀌므로, 그 지식을 간직해야 된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노력이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일단 너희가 보상을 받고 난 후에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 자녀들을 위한 보상이 곧 황금시대다.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듣고 매우 놀라워한다. 이 지식은 왜 태초부터 존재해오지 않았나요? 아버지가 말한다: 이 지식은 사라진다. 일단 낮이 되면, 무지가 없으니 지식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설명해야 한다.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쉬브 바바는 오직 바라트에만 오며, 너희가 행한 신봉에 대해서 결실을 주려고 선물을 가져온다. 신봉 후에 구원이 있다. 이 멸망은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징후들도 있다. 단 하나의 불꽃이 일어났을 뿐인데 한두 시간 안에 빌딩 전체가 완전히 불에 타서 전소했다는 이야기를 너희가 계속 듣는다.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니다! 파멸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황금시대에는 오직 극소수의 고귀한 인간들만 있다. 고귀해지려면 참으로 많은 노력이 든다. 마야가 너희의 코를 붙든다. 이처럼 추락하는 자들은 매우 심하게 다친다. 시간이 걸린다. 가장 큰 손상을 야기하는 것은 정욕의 악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욕을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너희들을 불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악덕 때문에 말다툼이 생긴다. 만일 그들이 너희를 놔두지 않고 악덕에 탐닉하도록 강요한다면, 너희는 틀림없이 “이것보다는 차라리 접시를 닦는 편이 낫겠습니다. 마루바닥을 쓸고 걸레질을 하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지만, 최소한 순수하게 지낼 것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누가 아버지에게서 피난처를 구할 경우, 마야도 또한 싸움을 시작한다. 5악이라는 질병이 오히려 더 심하게 터져 나온다. 제일 먼저, 지각에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 너희들은 이미 산 채로 죽었다. 여기에서 닦은 이미 올려졌다. 너희들은 철시대의 사악한 해변을 이미 떠났다. "우리는 지금 순례를 떠났다. 우리는 몸이 없이 되어서 집에 돌아가고 있다." 영혼에게는 "우리는 이 몸을 벗고 다른 몸을 취할 것이다. 가족과 함께 집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연꽃처럼 순수하게 지내고, 또한 순례 길 위에서 머문다."라는 지식이 있다. 이것이 묘지라는 사실을 지각 안에 지녀라. 우리들은 행복의 나라로 가고 있다. 바바는 너희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으로 그는 너희에게 유산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순수해지려고 요가에 머문다. 너희들의 죄는 오직 기억을 통해서만 사해될 것이다. 그런 다음 너희 영혼들은 몸을 벗을 것이다. 이 순례는 참으로 경이롭다! 그냥 아버지와 너희의 왕국만 기억하여라. 너희들은 이렇게 간단한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그저 알파만 기억하여라, 그게 전부다! 그러나 마야는 너희가 이만큼을 기억하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노력을 요한다. 너희 영혼들은 우리의 바바가 왔다는 지식을 받았다. 영혼들이 공부하고 있다. 영혼은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 영혼들은 형제들이다. 너희들이 육신의식이 되면 수많은 관계들이 생긴다. 여기에서 너희들은 형제 자매들이다. 너희들은 형제들이며, 또 형제 자매들이기도 하다. 이것은 가정의 길이다. 양쪽 모두 유산이 필요하다. 노력하는 것은 영혼이다. 너희 자신을 영혼이라고 여기는 것이 유일한 노력이다. 육체의식이 전혀 없어야 된다. 만일 몸이 없다면, 너희가 어떻게 악에 탐닉할 수 있느냐? 나는 영혼이고, 아버지에게 가야 한다. 몸의 의식이 남아 있어선 안 된다. 너희들이 점점 더 요기가 될수록, 너희의 신체감각들은 더욱 조용해질 것이다. 너희들이 육체의식이 되면 너희의 신체감각들이 말썽을 일으킨다. 영혼은 자신이 뭔가를 얻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 몸에서 초연해질 것이다. 그러면 신체감각들도 또한 아주 평화로워질 것이다. 산야시들은 약을 먹어서 신체감각들을 다스린다. 그것은 하타 요가다. 너희들은 요가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요가의 힘으로 너희의 감각들을 통제할 수 없느냐? 너희들이 더욱 영혼의식이 될수록, 너희의 감각들은 한결 더 평화로워질 것이다.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성취도 또한 위대하다. 아버지가 말한다: 너희는 요가의 힘으로 세계의 주인이 된다. 바라트의 요가가 아주 유명한 것은 너희가 신체감각들을 정복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인간에서 신인들로, 불순한 데서 순수하게 변한다. 백성들도 역시 천국의 거주자들이다. 너희들은 요가의 힘으로 천국의 거주자들이 되는데, 물리적인 힘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쿠마리들의 경우에는 마치 노력할 게 없는 것과 같다; 그들은 자유롭다. 일단 너희가 악덕에 빠지면,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 쿠마리

로 남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아다르-쿠마리(절반의 쿠마리)"라는 이름을 받는다. 왜 너희가 부부가 되는 것이냐? 그것에도 역시 이름과 형태에 대한 도취감이 있다. 그것 역시 어리석음이다. 부부가 된 후에 순수하게 지내는 데는 크나큰 용기가 필요하다. 지식의 완전한 깨우침이 있어야 된다. 용기를 가진 이들은 많지만, 일단 불길의 영향이 약간만이라도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바바가 말한다: 쿠마리인 것이 역시 좋다. 생각으로라도 왜 아다르-쿠마리가 되려고 하느냐? 쿠마리들의 이름이 영광스레 빛난다.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내내 순결하다. 순결하게 지내는 것은 좋다. 그것 안에는 힘이 있다. 그러면 다른 아무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용기가 있으면 너희가 그것을 시범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노력을 요한다. 너희들은 두 사람이다. 너희들이 쿠마리일 때는 혼자다. 너희들 둘이 있을 때는 이원성이 있다. 가능하면 오래 쿠마리로 남아 있는 것이 좋다. 쿠마리는 심지어 봉사하러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일단 너희가 굴레에 묶이면, 그 굴레들이 늘어날 것이다. 너희들의 지각이 갇힐 그런 함정을 왜 너희가 만들겠느냐?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것은 좋지 않다. 쿠마리들은 매우 좋다. 쿠마리들이 바바의 이름을 영광되게 빛내 왔다. 칸해야(쿠마리들의 크리슈나)라는 이름이 기억된다. 쿠마리로 남아 있는 것은 아주 좋다. 그들에게는 아주 쉽다. 학생 생활은 순수한 삶이다. 지각도 또한 생생한 상태를 유지한다. 쿠마르들은 비샴피타마이처럼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지난 사이클에도 이것이 되었고, 그래서 딜와라 사원에 기념비가 있는 것이다. 아버지가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나를 기억하여라! 다른 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유익하게 하여라! 오직 아버지를 기억하는 데에만 유익이 있다. 너희 자녀들이 실수를 저지르면 너희는 넘어진다. 남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그저 너희 자신만을 이롭게 하여라.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생각지 말아라! 황금처럼 되어, 남들에게도 역시 이 길을 보여주어라. 사토프라단해지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순수해지지 않고는 해방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길은 단 하나뿐이며, 그러면 너희의 마지막 생각이 너희의 목적지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잡담하는 일을 그만두어라. 그렇지 않으면, 오직 너희 자신들에게 손실만을 초래할 것이다. 아버지가 너희를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슈리마트를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가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이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떼.

실천 요지:

1. 믿음 있는 지각을 가지고 살면서 이 낯은 세상으로부터 너희의 닳을 올려라. 아버지의 모든 지시를 따르고, 너희 스스로에게 유익을 주어라.
2. 남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너희의 지각을 순금처럼 순수하게 만들어라. 남들에 대해 잡담하면서 너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요가의 힘으로 너희의 신체감각을 차분하고 평온하게 만들어라.

축 복: 왕관을 쓰고 옥좌에 앉아서 너희의 도취감과 목표를 의식하며 너희의 지시에 따라 신체기관들이 일하게 만들어라.

합류시대에 자녀들은 모두 밥다다에게서 왕관과 옥좌를 받는다. 너희는 순수성의 왕관과 책임의 왕관을 가지며, 또 너희에게는 불멸하는 옥좌와 가슴의 옥좌도 있다. 2중의 왕관과 옥좌를 가질 때 너희는 자동적으로 도취감과 목표를 기억한다. 그렇게 되면 신체기관들은 “네, 주인님”이라 할 것이다. 왕관을 벗고 옥좌를 떠난 자들의 지시는 일꾼들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슬로건: 나약한 생각들은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의문으로 가득하게 만들 것이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